

캔 윌버의 미래의 종교 요약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시대에 혼재하는 세계 종교와 다원화된 전통에서, 그 속에 발견되는 귀한 가르침을 제련해서 소개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런 일을 한 대표적인 통합 이론가가 Ken Wilber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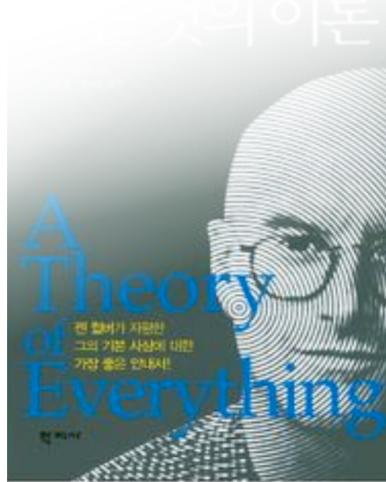
그는 약관 24세 경 쓴 ‘의식의 스펙트럼’으로 자아초월 심리학계에 혜성처럼 나타났고, 그 이후 오십여 년 집중적인 집필활동으로 동서양의 모든 종교적 영적 전통, 서양 철학의 주요 사상 및 현대 심리학, 특히 발달 심리학의 정보 등을 종합한 통합 이론을 제시해 왔다. 그가 가장 최근에 집필한 책이 <미래의 종교>이다. 필자는 지난봄 북미주 서울의 대연례 학술 모임과, 또 미주 서울대 동문회, 온라인 포럼에서 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고 이 지면에서 그의 사상과 책을 요약 소개한다.

그의 이론은 진정한 통합이론인지라 종교나 정신과학 영역뿐 아니라 일반 의학, 정치, 경제, 문화전쟁으로 요약되는 현재의 제반 문제의 이해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이론이다. 또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생활 수련>은 개인의 전인적 발달, 진화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안내서이다.

그는 각 종교의 미래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네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가 Growing Up, 즉 성장의 길이다. 성장에 대한 체계적 이론/발견은 최근 백여 년 서구 심리학자들의 체계적 연구로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의 주요 종교들은 이미 이천 년 이상의 고대 세계에서 성립된 지라 그 시대의 세계관인 주술적 신화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것들이다. 캔 윌버는 James Fowler의 <믿음의 단계>를 인용, 인지 발달에 상응하는 믿음의 방식이 달라짐을 소개하며 컨베이어 벨트처럼 개인의 발달 단계에 맞게 각 종교의 가르침이 재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이 줄어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인다. 즉 합리적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단계의 개인들에게 기존 종교가 적절히 재해석된 메시지를 주지 못함으로, ‘아기를 목욕물째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과제는 Waking Up으로, 깨어남, 영적 체험을 위한 수련의 필요성이다. 이 부분은 이미 동양 종교에서는 참선, 명상수련 등의 이름으로 잘 확



립되어 있다고 보는데, 기독교의 경우 역사의 초기부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개인들을 종교재판, 마녀사냥 등으로 억압해온 역사의 영향으로 거의 표충종교에 머물러 있기에 앞으로 특별히 강조되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나 이슬람의 종파가 문자적인 수준의 표충종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간의 상위의 발달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할 수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기독교에서 QT 등 명상 수련에 해당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좋은 움직임일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Cleaning Up인데, 심리 정신 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인간은 발달 과정의 매 단계에서, 그 단계에 고착되거나 혹은 반대로 기피, 알리지 반응 등으로 여러 종류의 심리적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에 노출돼 있기에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다. 명상지도자 겸 정신과 의사인 Roger Walsh는 수행자들과 일대일로 상담하는 경험을 통해, 수행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의 80%는 대개 정신, 심리치료적인 문제들이었다고 보고 한다.

네 번째 영역은 Showing Up이다. 그의 이론에서 독특한 것이 사분면 이론인데, 우주정신이 우주에 현현하는 방식이 사분면으로 동시적으로 나타남을 얘기한다. 개인적 내면(일인칭 영역)과 외면, 집합적 내면(이인칭 영역)과 외면으로 나누고, 또 집단의 내 외면을 합쳐 객관적, 삼인칭 영역으로 묶으면 삼분면으로 요약된다. 이는 철학의 세 주제인, 진(삼인칭), 선(이인칭, 우리 사이의 관계, 도덕), 미(일인칭, 내면적 주관적 면)의 각 부분에 상응하고, 또 불교의 불(일인칭, 깊은 나), 법(삼인칭, 객관적 법칙), 승(이인칭, 나와 너의 관계, 도덕), 혹은 기독교의 성자(일인칭의 깊은 나), 성부(이인칭, 영원한 너), 성령(삼인칭, 객관적

김자성 (85, 남가주)

우주정신) 등으로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 칸트의 삼대 비판인 순수 이성 비판(삼인칭, 객관적 이성), 실천이성 비판(이인칭, 서로에 대한 도덕), 판단력 비판(일인칭, 내면적)으로 상응할 것이다. 즉 우주와 인간의 삶을 이해할 때 이런 사(삼) 분면, 즉 내면적인 정신, 또 두뇌 등 외면적 몸, 또 나와 너, 우리 사이의 관계, 또 객관적 사회제도나 기반 구조 등 모든 면들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전인적인 접근법이다.

그는 이런 이론에 근거 <통합적 생활 수련>을 매일 일상 삶에서 실천할 것을 권유한다.

그는 우주 역사의 전개를, Spirit in action이라고 요약할 만큼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전근대적 세계의 지배적인 세계관이 신화적이고 마술적인 단계였고, 현재 세계는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유물론적 세계관이 지배적이라면, 다가올 미래의 세계는 통합적인 단계에서 ‘모든 것이 영적’이라는 세계관, 그래서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과학과 무리 없이 통합되는, 정말로 가장 정교한, 우주와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세계관으로 될 것을 기대한다.

그에 의하면 발달은 끝없이 전개된다. 그러나 대다수 개인들은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발달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살게 되는 게 현실인자라, 어쩌면 은퇴 후가 이런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더 깊은 개인적 성장, 영적인 깨어남 등을 위한 최적기일 것이다.

그는 현재 인간 의식의 최첨단 성장판에 해당하는 <통합적 사고>의 단계에 이를 개인이 약 5%라고 한다. 또 역사적으로 성장판에 해당하는 부분이 10%에 이르면 획기적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통합적인 사고의 단계로 되는 노력이 있다면, 지금처럼 사회계층 간에 극도로 분열된 문화 전쟁의 문제가 해결될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는 통합적 생활 수련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명상 수련을 강조하는데, 사회의 의식 성장판에 해당할 수 있는 우리 동문들이 이런 명상수행을 통해 의식의 확대, 발달에 노력을 더한다면 전 사회적 규모의 의식의 성장, 발달에 힘을 실어주는 고귀한 일이 될 것이다.